

5·18 계엄군 성폭력, 정부 조사서도 밝혀졌다

진상조사위, 피해 의혹 19건 중 16건 규명...3건 '조사 불능' 강간·미수 9건·강제추행 5건·성고문 1건·성적학대 6건 등 대상·장소 가리지 않고 성폭력 자행...경찰서에서도 성폭행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전남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력 범죄가 정부 차원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의혹이 공식 조사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성폭력 피해 의혹 사건 52건 중 조사거부·사망 등을 제외한 19건(명)의 사건에 대해

조사해 16건을 진상규명 결정했다.

도심시위진압작전(18~21일) 중 발생한 사건이 8건이며 외곽봉쇄작전(21~26일) 중 3건, 광주제진입작전(27일) 중 1건, 연행·구금·조사과정(1981년 1월 24일까지) 중 4건 등이다.

중복 피해를 포함해 강간 및 강간미수는 9건, 강제추행은 5건, 성고문은 1건, 성적 모욕 및 학대는 6건, 재생산폭력(유산, 자궁적출, 강간 후 임신이나 임신중절 등)은 3건 등이었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건 중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트라우마 등

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례도 8건에 달했다.

조사 결과 계엄군은 18~21일 도심시위진압작전 중 수창초교 앞, 공용터미널·전남대운동장, 전남여고 인근, 백운동 야산, 운전저수지 인근 등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 심지어 광산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등지에서도 성폭행을 자행했다.

계엄군의 성폭행은 고등학생, 임신부도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이뤄졌으며, 집단성폭행도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3개월이었던 A씨는 5월 19~20일 오후 8~9시께 전남여고 후문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차례로 성폭행 당했다.

여고생이었던 B씨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께 귀가 도중 계엄군에게 납치당해 2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의한 피해도 드러났다. C씨는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연행된 이후 상무대에서 조사받는 과

정에서 옷을 벗은 채 조서를 쓰게 하는 등 성고문을 당하고,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후유증뿐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

진상조사위는 지위 체계를 통한 조직적인 성추행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 5월 18일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대장으로 부터 '옷을 벗겨 창피를 주어 여학생들이 데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 계엄군이 시위대 체포와 호송 및 관리, 가택수색과 임시검문, 사전정찰과 매복 등 수명씩 조를 이뤄 활동하는 상황에서 2~5명의 인원이 가해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또한 시민군을 연행, 구금, 조사하는 과정에

서 행해진 성고문과 성적 모욕 및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관 등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는 조직적 성격이 드러났다고 진상조사위는 판단했다.

한편 조사결과와 관련 국민회합추진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피해자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사건 현장 목격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미진한 채 계엄군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 결정된 16건 중 합의로 결정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근거가 미약한데도 표결로 진상규명 처리됐다"고 소수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회합추진 위원들은 "국가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적절하다, "계엄군 자체를 국가폭력의 집단으로 폄하하고, 나아가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성범죄 집단으로 오인해 하고 있다"는 표현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지난달 28일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기사업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의료기사업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기인 안경사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팔았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판단은 달랐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하지만 안경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적정히 보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돼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이영진 재판관은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신중한 손놀림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 광주 지방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부문 출전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좁은 인도·차량 엉켜 등갯길 위험 복구, 스쿨존 방호 울타리 바꾼다

우산초·수창초 등 8일부터

새학기를 맞아 광주지역 등갯길에 위험하다(3월 21일자 광주일보 6면)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시 북구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zone) 방호 울타리 교체작업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우산초(광주시 북구 우산동), 수창초(북동), 경양초(운암동), 양산초(양산동) 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방호 울타리는 광주형 공공 디자인 심의를 거친 제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 학교는 좁은 인도와 등·하교 차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갯길 위험이 지적됐다. 인도 한쪽에만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거나 방호 울

타리가 오래돼 낡거나, 스테인레스 봉 형태로 세워져 학생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다.

우산초의 경우 15년 된 방호 울타리를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설치한다. 수창초의 경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신설됨에 따라 146m가량 스쿨존 길이를 늘리고 울타리를 세울 방침이다.

또 경양초는 방호 울타리가 한쪽 인도에만 설치돼 있어 일부 학생들은 도로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양방향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방호 울타리가 세워지지 않았던 양산초에는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등·하갯길 학생들을 차량 등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살펴줬다"고 밝혔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늘봄학교 45개교로 확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를 32개교에서 45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시행 학교를 확대했다.

추가 운영되는 13개교에는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해 배치할 계획이다.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비와 재료비, 운영비 등도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학기 우선 시행 늘봄학교 학부모 27명으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학기 우선 시행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우수사례를 자세히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2학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더스트리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